

“우화속 곱벵이는 우리자신”



고준환 교수, '곱벵이의 꿈...' 출간

매미의 생태통해 '수행과정' 조명

“매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탈바꿈하여 되어야 할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두 날개로 날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며, 이슬이나 나무즙을 먹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즐기며 남을 기쁘게 해주는 자유로운 것이다. 그것은 땅속에서의 곱벵이 상태를 포기하고 지상으로 나와 질실히 날고 노래하기를 원할 때 가능하다.”

“복숨을 버리라는 말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너의 곁모습은 없어져도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에 최선을 다하며 불교의 사회화를 위한 활동에도 진력하는 고준환교수(경기도 법학)가 쓴 우화 <곱벵이의 꿈 매미의 노래> (말말) 가운데 한 부분이다.

하잘 것 없어 보이는 곱벵이가 갖은 고난을 겪고 탈바꿈하여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매미가 되고, 이어 본래 자리인 대생명으로 돌아가는 자연속의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고준환교수는 “우화속의 곱벵이는 바로 나 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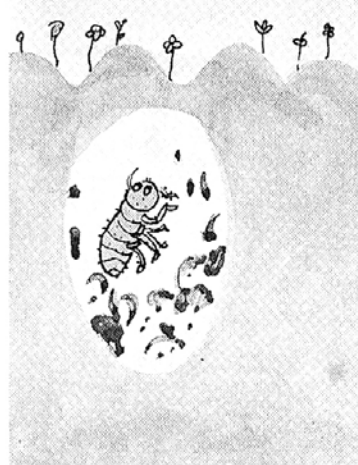
이자 우리를 모두입니다. 매미의 한 살이는 우리 인간의 생과 마찬가지로 허무합니다. 그렇지만 수행을 하고 선정에 들며 거기서 비롯되는 지혜의 힘으로 '아하!' 하고 깨달음을 얻을 때 참된 나로 돌아가 영원히 광명세계에서 자유자재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고교수는 자연 생태계의 세심한 관찰을 통해 인간의 삶을 깊은 사유로서 표현해 내고 있다. 자연 속에는 생로병사와 깨달음의 길이 함께 공존하고 모든 생명체는 하나를 향해 나아간다. ‘끝자리의 비밀을 밝히고야 말겠다’며 끝자리를 찾아떠난 곱벵이. 밝고 밝히는 험난한 여정 끝에 드디어 끝자리에 다다르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채 욕망과 욕심의 끝자리를 유일한 목표로 여기는 현대인의 모습을 고교수는 곱벵이를 통해 그대로 투영해 낸다.

끝자리에서 다시 내려와 온갖 위험과 함정을 견뎌가며 매미의 꿈을 키우는 곱벵이의 삶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역정이다.

“우리는 모두 매미가 될 수 있어. 나는 보았지. 허물벗는 매미를,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지는 것을. 기다려,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땅굴을 뚫고 지상으



전주대 하수경교수가 그린 삽화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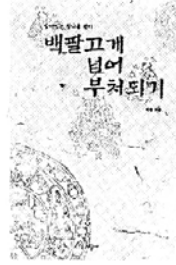
로 나아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무줄기에서 매미로 탈바꿈 해야돼” 바로 매미와 같은 삶이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배움의 삶이자, 깨달음의 자리라고 이 책은 은연중 강조한다.

특히 이 책은 전주대 미술학과 하수경교수가 직접 그린 생생한 삽화가 보는 책의 묘미를 더해 준다.

이은자 기자

108고개 넘어...

계한 지음



문답형식 쉽고 실감나는 신행안내서

계한스님(동국대 교수)이 집필한 <108고개넘어 부처되기>는 불자들이 생활속에 느꼈던 불교에 대한 궁금증 108가지를 흥미로운 이야기와 비유, 현대적인 감각으로 실감나게 설명한다.

이 책에는 어린이불자들의 재미있는 질문과 칠순이 넘는 불자들의 넉넉한 체험에서 우러나온 질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제1부 불교란 무엇인가에서는 불교의 중요교리 해설을, 제2부 지옥과 극락에서는 해탈, 열반, 무아, 윤회 등을 설명하며 불교의 세계관에 대해 살펴본다. 제3부 성불하세요에서는 불교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주고, 제4부 더불어 사는 삶에서는 종교 갈등, 이웃종교, 자녀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신생활의 길잡이 역할까지 하고 있다. (시공사 6천5백원)

화제의 책

조선청년에게 고함

김상현 지음

만해 한용운 이복

조선 청년에게 고함



서문지

‘참자아 찾기’ 등 만해스님 어록 발췌

“흐르는 물을 맑게하기 위하여 원천을 다스리고, 가지와 잎을 무성케 하기위해 뿌리와 줄기를 북돋우니, 진여불성(眞如佛性), 즉 무한아, 절대아를 실현하기위해서는 마음닦는 일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

동국대 김상현교수가 어렵게 생활했던 청년 시절에 희망과 용기를 얻었던 한용운 전집에서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만해 한용운 어록 <조선청년에게 고함>을 펴냈다.

“청년들이여, 만해를 배우라”는 위당(爲堂)의 권고에 만해스님의 말씀을 새롭게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김교수는 밝혔다.

팔팔팔팔한 글들속에서 오직 정당한 길만을 걸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인간본연의 대도를 느낄 수 있다.

(시와시사 5천원)

조사선 수행법 ‘대중속으로’

‘비전달마선법’ 등 출간

끊임없이 깨어 있음을 통해 매순간을 충실하고 진지하게 살 것을 강조하며, 그 방법으로 심신 수행법을 소개한 <비전 전달마선법>과 후속편 <어떻게 닦아가리까?>가 태일출판사에서 잇따라 출간됐다.

이 책은 범조 광운스님(종종불교개혁회의 의장)이 근래의 선지식과 과거 도승들의 행적을 비교 분석, 연구한 결과물이다.

<비전 전달마선법>은 조사선에 대한 설명과 수행방법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초조사선부터 선체조에 이르기까지

기초동작을 사진과 함께 실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 했다.

후속편 <어떻게 닦아가리까?>는 전권에 소개된 수행법을 토대로 약간의 소설형식을 가미해 일반불자들의 이해를 도모했다. 주인공이 한여름 밤의 꿈속에서 스승을 만나 조사선법(祖師傳法)의 구결(口訣)을 전수받고 체계적으로 닦으면서 대도를 성취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장석주 명상소설

‘세도나 가는 길’ 펴내

내면의 참자아를 찾아가는 명상서적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명상을 통한 영혼의 해탈을 지향하고 있는 명상소설 <세도나 가는 길>(단)이 나와 화제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장석주의 작품.

집 나간 아내를 찾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왔다가 세도나에서 열리는 명상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시나리오 작가 최영호는 초탈이라는 형식으로 명상을 통한 깨달음을 맛보게 된다. 미국 서부 사막지대인 애리조나주의 중심에 위치한 세도나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진 예술가들이 예술적 영감을 얻기위해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곳이다. 세도나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된 윤미사라는 여인과 운명적인 사랑을 나누게 된 최영호는 자신을 에워싼 집착을 벗어던지고 영적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된다. 소설속에서 ‘사람도 있고 소도 있고 기억의 밑바닥에 남아있는 것까지 다 있어야 한다’며 심우도를 빌어 초자연적인 명상을 불교의 해탈로 승화시키고 있다.

정신과 영혼에 관한 주제들을 소설의 형식을 빌려 접근하고 있는 이 책은 동양적이고 자연주의적 삶의 방식을 강조한다.

새로 나온 책

▲구름뒤편에 파란하늘이=부산 보현선원의 정여스님이 불교방송국 ‘생활속의 부처님 말씀’에서 방송한 내용을 엮은 책.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생각이 맑고 깨끗한 하얀마음에서 일어난 마음의 때리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일깨워 주고픈 마음에서 엮었다는 이 책은 생활속에서 참나를 찾아가는, 그리고 마음을 청정하고 맑게하는 평범하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창조 6천원)

▲위빠사나 열두선사=책 콘필드가 그의 수행과정에서 겪어온 풍부한 일화와 대담 남방불교의 교리와 수행을 편집해 펴낸 책이다. 서울 위빠사나선원과



불교방송 등에서 위빠사나를 지도하고 있는 김열권 씨가 번역했다. 이 책에 수록된 수행법은 열두 선사에 의해서 구체화 된 것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몸 실천에 보였던 전통적인 명상의 수행이 그 바탕에 온전히 내재돼 있다. <불광 9천원>

▲내부로부터의 혁명=인체의 시스템을 규명하고, 그 시스템의 활용으로 적절한 뇌파와 뇌내물질을 유지하여 건강을 확보하고 정신집중력을 얻는 과학적

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책. 불교, 요가, 선도, 도교 등을 넘나들며 인간의 건강 유지 문제를 체계화 하고 다양한 과학적 근거들을 제공한다.

▲원효결서1.2=6.3사대주역의 한사람인 김중태씨가 펴낸 이 책은 우리민족과 인류의 운명, 우주의 섭리에 관련한 엄청난 비밀을 낱알이 파헤쳤다고 주장한다. 단군조선, 삼국, 고려, 조선, 근세, 현대사 는 물론이고 미래의 일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교림
2	피안으로 이끄는 사자후	탄 허 교 립	교림
3	49세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이바지
4	원효	고 영 실	한길사
5	인연(작은책 3)	서 정 주	민족사
6	삼이세신 부다 삼이세신 그리스도	틱 낙 한	한민
7	한글어합경	고 익 진	동국대출판부
8	하늘수호로떠난 여행	류 시 화	열림원
9	나의문화유산답사기 3	유 흥 준	창작비평사
10	백팔고개넘어 부처되기	계 환	시공사

구입문의:(02)737-0695

출판가소식

‘수호국계주...’ 국역발간

동국대경원이 <수호국계주 다라니경>을 펴냈다.

이 경은 10권 11품으로 이뤄져 있으며 당나라 정원19년(802년)에 인도승 반야와 모니실리가 자자사에서 공동번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려시대의 많은 스님들이 호국불교의 경전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문체부 우수학술서 선정

문체부가 발표한 97년 우수학술도서 종교분야에 민족사의 <한국근대불교사연구>(김광식 지음), 민중사의 <환경과 종교>(김희성 외 지음), 문학과 지성사의 <16세기 무신앙문제>(김용종 역)등 3권이 선정됐다. 이번 우수학술도서선정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출판된 도서 628종 가운데 사회과학, 예술등 총 9개분야 63종 70권을 엄선 발표했다.

문화체육부는 선정된 도서에 대해 해당출판사에 제작비 일부지원과 함께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유관기관에 대한 홍보를 통해 학술도서에 대한 관계기관 및 독자들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1600년 한국불교의 신비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비디오 출시

이름모를 산야에 흩어진 기와장 하나 돌뿌리 하나에서도 선조들의 지혜와 혼을 배우고자하는 사명감과 우리문화 바로배우기의 일념으로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고려대장경, 석굴암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뭉클한 선각자의 체취를 느끼시는 당신에게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불교를 아는 당신에게겐 21세기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삼보사찰 - 불보종찰 통도사, 불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 고려대장경 I, II, 불국사·석굴암 I, II

불교전통의식 의례 - 예불, 발우공양

불교전통문양 - 한국사찰의 꽃문

대하다큐멘터리 - 티베트 불교

4년의 제작기간, 신비의 스펙터클 - 전 30부작 15개 (출시판매중)

10개 1SET *카드결제 가능

구입문의처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3272-0781~5, 706-3502~5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